

# 제15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

## 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5. 11. 10(화) 10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5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김남효, 박민정, 왕광현, 이낙경, 이종건  
이혜경, 정정주, 홍승욱, 홍현숙, 황현숙
- ◆ 안 건 : 미술작품 3건 3작품(조각 2, 부조 1)  
[재심 3건]
- ◆ 결 과 : 승인 3작품

## □ 위원 발언 내용

### <위원장>

- 2015년 제1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. 금일 심사위원 10명 중 10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- 공개토론부터 먼저하고 채점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.
- 그럼 의견에 따라 공개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1번 작품부터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. 이번 세 작품은 모두 재심작품이어서 보완사항을 잘 보시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
- 기존 작품보다 먼저 변경작품이 좀 더 리드미컬한게 더 부여되긴하였습니다. 그 옆의 원이 기존에 없었던게 생겼는데 이게 좀 더 각이 있다거나 이런 형태가 아닌 주 작품인 메비우스같은

이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았을거 같은데 원형으로 표현되어 이게 과연 주 작품하고 매치가 되나 싶습니다. 구의 형태가 변형이 있었다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

- 사이즈가 커졌다는 거와 색깔이 좀 들어갔다는 거 외에는 크게 변한 게 없는 거 같은데요.
- 상당히 많이 바뀐거 같은데요. 전에는 표면이 매끄러웠는데 이번 작품은 용접으로 메꾼 것이 상당한 변화라고 봅니다. 디테일 들어가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.
- 추가로 구 형상이 들어갔는데 이게 전체적인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, 사람들의 접근에 방해가 되는 거 같습니다. 변화된거 자체는 좋지만 이 자체가 사람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뺐으면 좋지 않나 합니다.
- 작가의 의도를 모르지만 이 구형이 반사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빼는 건 고려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.
- 지난 번 보다 크기를 키웠는데 실제 설치된 위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이게 설치가 되었을 답답해질 거 같습니다.
- 빼는 조건으로 승인이 가능한가요
- 조건부로 승인 가능합니다.
- 공간이 좁아서 뺐다면 작가는 동의할 거 같긴 합니다.
- 제가 봤을 때 이야기 거리가 많을 거 같습니다.
- 이야기 거리가 풍부해지는 건 있는데 공간이 좁은 면이 있습니다. 여기서 봤을 때는 넓어 보이지만 평면도로 봤을때는 좁은 면이 있습니다.
- 이미지 상으로 사람을 작게 그려놔서 그렇게 크지 않을 거 같

구요. 줄이기에겐 작아보일거 같은데요. 주변과의 간격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4m는 그렇게 큰 조형물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.

○○○ 건물높이가 14층 약 58m로 건물높이에 비해 작품이 그렇게 큰 거 같지는 않습니다. 이 동그라미가 있어서 더 다양하고 재밌고 흥미로운 느낌을 받았는데요.

○○○ 안으로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있음으로 그런 걸 좀 막기는 하지만 재미는 있는 거 같습니다.

○○○ 처음의 단조로운 작품보다는 재미있는 거 같습니다.

○○○ 2번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
○○○ 전체 단지에 이 작품 하나만 들어가나요?

○○○ 네. 한 작품입니다.

○○○ 단지의 규모에 비해 액수가 좀 작은 거 같은데요.

○○○ 공동주택의 경우 산정비율이 낮기 때문에 작품설치금액도 오피스텔에 비해 낮습니다.

○○○ 금액대비 작품은 좋은 거 같습니다. 규모도 7m면 높이도 크고 작품도 신선한 느낌입니다.

○○○ 제 취향은 아닌데요. 이런 작품은 규모가 좀 더 커져도 좋을거 같은데요. 작품이 좀 달힌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만약 통과가 된다면 조명을 한 가지 색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답답한 느낌입니다.

○○○ 주경하고 야경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야간에도 색있는 조명이 들어가는데요. 혼동되게 해놨는데요. 한가지로 가야하는데 조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.

○○○ 건축 벽면에 있는 동그라미나 네모 등 도형이 부조와 안 맞는

거 같습니다. 작품이 부각이 안 될 거 같습니다.

- 부조자체가 눈에 띄기가 어렵습니다.
- 전체적인 배치도를 보면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.
- 이 시도 자체는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.
- 13페이지를 보면 이게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.
- 연장선상에 있는 거네요.
- 아파트 진입구 전체적면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죠
- 좀더 나무를 변화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고사리식으로 표현이 좀 단조롭습니다.
- 비용에 비해서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거 같습니다.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, 독창성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.
- 통과가 안되면 기금으로 넘어가나요?
- 건축주의 판단하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기금을 납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.
- 기금으로 납부하면 다른 방법으로 쓰여지는 거 아닌가요?
- 기금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이 장소에는 미술작품이 설치되지 않습니다.
- 미술작품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벽면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직선적이거나 도형들이 있는데 작품은 바람에 춤을 추는 나무라고 되어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.
-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갑니다.
- 기존작품에 비해서 작품을 구성하는 사물들이 시원한 느낌을 주고, 위치도 이동하여 넓게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.

- 스테인리스에 우레탄도장으로 이렇게 하얗게 작업을 하면 나중에 시커매지지 않을까요. 공해가 많은 공간에 하얗게 작업을 하는게 괜찮은지요.
- 그렇게 쉽게 까매지지는 않습니다.
- 우레탄이 십여년은 유지된다고 하는데요. 색이 있을 때 오염도가 적을 거 같은데요.
- 자동차 도장같이 하는 거라서 사람들이 긁으면 벗겨질 수는 있는데요. 사람들이 앉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 손이 안 닿는 부분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.
- 좀 불안한 것은 애들이 밟고 올라가서 떨어질까봐 걱정입니다.
-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 작품이 더 좋은 거 같은데요
- 저도 그 점 동의합니다. 지금 장소 옮기는 건 잘한 거 같은데 작품의 내용, 표현된 object 들이 바뀌어 상징성/개념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전 것은 abstraction(추상성)이 있어 더 좋아 보입니다.
- 처음 것이 더 추상화시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. 흰색이 관리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시각적인 청결함은 오히려 더 낫습니다.
- 도면에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 배치를 했던데요. 예전작품을 이쪽으로 가져 올 수는 없나요? 전 예전 작품이 나은 거 같습니다.
- 위원장님 말처럼 아이들이 올라간다면 약간 위험할거 같습니다.
- 아이들이 사과 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구요. 그런 부분까지 의도한건 아닐텐데요.
- 제일 중요한 게 공공조형물이니까 안전성이죠

- 위험요소라면 아이들이 모험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.
- 아파트라서 관리를 다 하고 있고, 상식적으로 다 자제를 하지 않을까요
- 안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. 다른 작품에 비해서 올라가고 싶기는 할 거 같은데요. 저는 오히려 차량의 도장이 얇게 되면 도색이 쉽게 벗겨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색이 벗겨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.
- 평면도를 보면 거리를 두도록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. 스인시 조건사항으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.
- 모든 조형물들이 사실 도색에 관한 부분은 모두 시간이 흘러가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. 안전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좀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.
- 바닥이 잔디로 되어있어서 조금은 떨어져도 완충은 될 거라고 봅니다. 아파트 관리소에서 아마도 알아서 잘 관리를 할 거 같습니다.

#### <위원장>

-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각자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.

#### <채점 진행>

#### 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<위원장>

- 오늘은 재심 3개 작품 모두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5년 제1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